

국경절 연휴 구경거리

제 14 회 '조선족백종절' 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

룡정량전백세운동휴일풍경구에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

2024년 제 14회 '조선족백종절'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이 룡정량전백세운동휴일풍경구에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열렸다.

전시활동의 시작을 알린 '조선족백종절' 농악무는 전통 농경 문화의 정수를 민족특색이 짙은 예술적인 춤으로 표현하고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농민들의 기쁨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백종절'의 독특한 매력을 잘 보여주었다.

개막식 공연에서 장고춤 <고락제명>은 신나는 북소리와 아름다운 춤사위로 관객들을 사로잡았고 그 뒤로 가곡 <벼싹타령>, <문화유산>, <아름다운 중국꿈>, 가요금 연주 <사과배 고향>, <연변인민 모주석을 열애하네> 등 종목이 이어지면서 고향을 사랑하는 연변인민들의 마음을 보여주었으며 <사물놀이>, 무용 <두만강 찬가> 등은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공연은 합창 <조국을 노래하네>로 무대를 마쳤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정신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룡정시는 '백종을 전시하고 백종을 기념하며 백종을 맞보고 백종을 즐기다'라는 다양한 시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축제, 예술공연, 민속품, 제품판매, 문화감상, 체험 등 다양한 분

야에 거쳐 특색있는 행사를 조직, 량전백세풍경구의 주제 요소를 바탕으로 '백종부락' 무형문화유산체험구역, 민속체험구역, '백미연변' 전시구역, 수확전시구역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먹고 즐기고 여행하며 룡정의 독특한 민족문화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 김영화기자



천대의 드론, 연길 밤하늘 아름답게 수놓아

10월 1일 저녁, 1,000대 드론이 연길의 밤하늘에 날아올라 화려한 쇼를 선보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을 열렬히 경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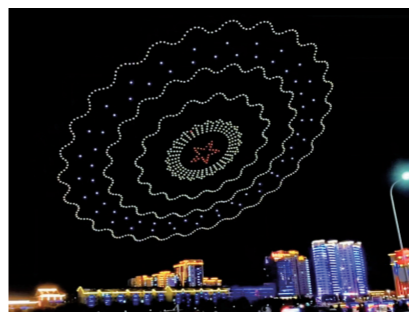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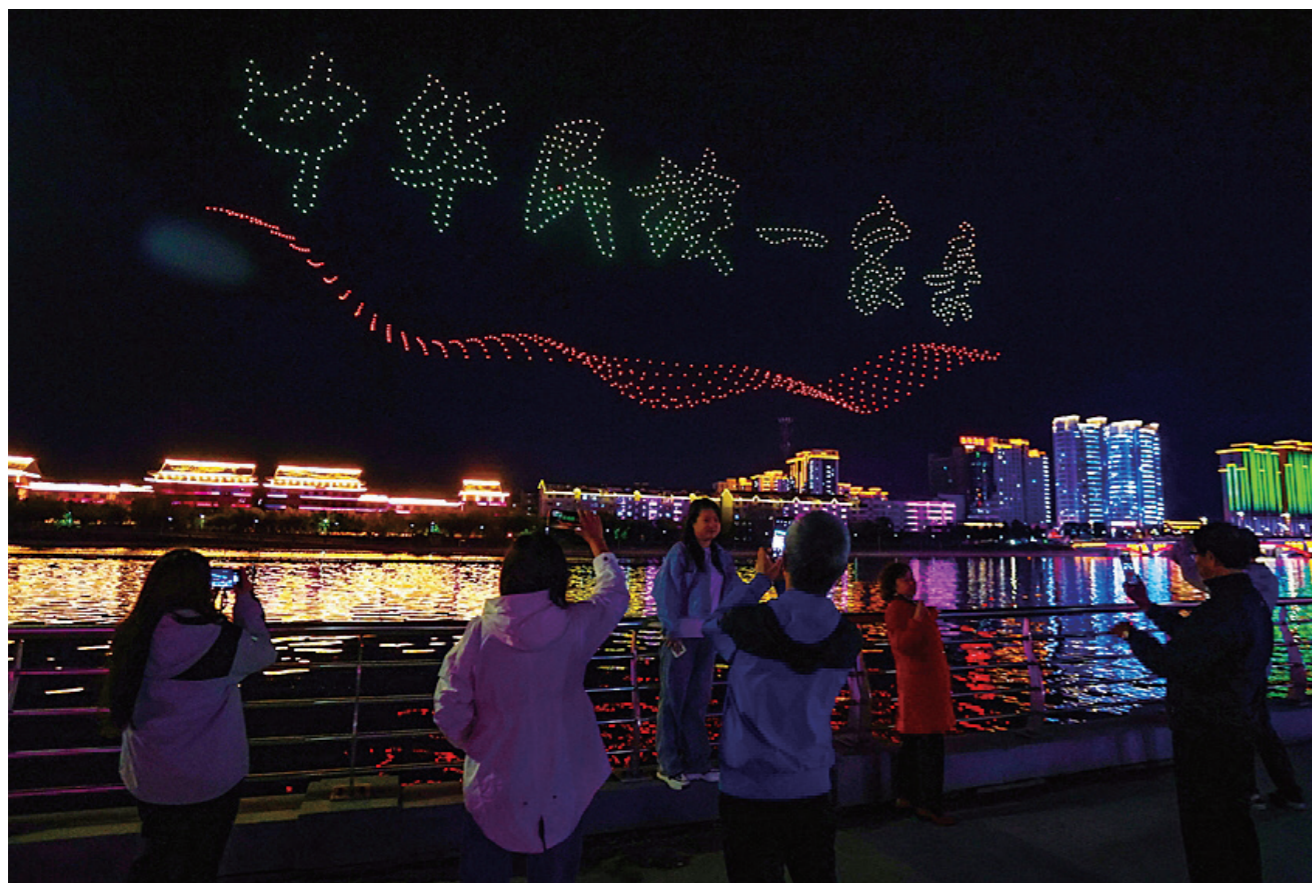
이날 저녁 7시, 노래 <사랑해오 중국>이 울려 퍼지는 부르하통하 상공으로 1,000대의 드론이 천천히 날아올랐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 문구가 감감한 밤하늘에 수놓아졌다. 뒤이어 립체 모형의 '75', 천안문 성루 등 드론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는 순간 과학기술과 자연의 완벽한 융합을 이뤄내며 명절의 한때를 보내는 연길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각적 향연을 선물했다.

'중화민족 한가정' 문구가 부르하통하 상공에 나타나자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소리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과학강국', '아름다운 연길', 연길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의 모습이 상공을 수놓으며 퍼포먼스를 펼치자 관중들은 감탄을 쏟아내면서 앞다투어 이 순간들을 휴대폰에 담았다.

피날레(终场)이자 이날 드론쇼의 대미로 장식된 '이곳이 바로 연길' 문구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자신감으로 가득찬 연길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과학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융합을 이룬 드론쇼는 연길의 밤하늘을 유난히도 아름답게 장식했다. 원만히 쇼를 마친 1,000대의 드론이 서서히 지면으로 내려오자 부르하통하 광안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박수갈채와 환호로 아쉬움을 달렸다.

/ 김영화기자 /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장백산풍경구 관광객 접대수 연 274만 8,400명 돌파

지난해 동일 방문객수에 비해 94일 앞당겨져

9월 28일까지 2024년 장백산풍경구의 관광객수는 연인원 274만 8,400명에 달하면서 2023년 장백산풍경구의 관광객수 274만 8,000명에 비해 94일 앞당겨졌다.

대자원의 조색판처럼 울긋불긋한 가을의 장백산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시각적 인상을 남겨준다. 이 계절은

또한 장백산 천지를 바라보기 가장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해발 2,189미터의 장백산 천지는 화산이 용암을 대량 뿜어내면서 화산구에 컵 모양의 분화구를 만들고 거기에 비물과 눈, 지하 샘물이 고여 이루어진 호수다.

장백산풍경구에서는 장백산폭포, 수직식생대, 취룡운천군, 대협곡 등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 인민넷



연변박물관 일일 방문객수 사상 최고 기록



▲ 연변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관광객들

국경절 연휴 기간 연변박물관이 방문객들로 장사진을 이룬 가운데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연 2만 1,000여명의 방문객이 연변박물관을 찾았으며 3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8,123명이 방문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연휴 기간 박물관은 예약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증별, 분관별, 시간대별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문객들을 안전하게 안내하여 원활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에 따르면 연변박물관은 얼마전 새롭게 단장된 모습으로 개관, 전시 설명, 다양한 연출, 조명, 최신기술 등이 대폭 강화되어 방문객들이 각 전시관에서 몰입감 넘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피흘려 싸우며 공동으로 적을 무찌르다—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용감무쌍하게 혁명한 빛나는 력사' 전시관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라다리를 건너며 혁명시대의 생생한 현장을 체험했다. '중화의 문명, 동변의 서광—고대 선민들의 연변 대지에서 력사 자취', '관문을 넘어

오고 강을 건너와 공동으로 삶의 터전 건설—연변 여러 민족이 융합 결집되어 간고하게 개척한 창상의 로정' 전시관에서 로인들은 옛 시절을 회상하며 조상들이 남긴 흔적을 찾고 있었다. '민속문화 다같이 이제로 움 발산—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서로 융합되며 의지하는 정신적 삶의 터전' 전시관에서 젊은이들은 민속문화를 배경으로 인종상을 남기고 있었고 '일심으로 당을 따라 휘황을 영속—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의 민족단결진보 추진 사업의 견고한 발자취' 전시관에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관람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5개의 주요 전시관외에도 현재 연변박물관에서는 '칼춤이 그리니 춘추시대—영자브랜드 도화그림예술포럼 전시', '나시족 동파문화전시', '길림 훈춘 고성촌 사찰터 전시', '연변지역 문화관광상품 전시' 등 다양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연휴 기간 연변박물관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예약없이 신분증만 소지하면 입장 가능'한 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 김영화기자

연길공항, 대흥공항축제로 세계에 연변 홍보

— 민속, 생태, 변경, 빙설 등 특색 관광제품 소개



▲ 제 4회 '925 대흥공항축제' 연변부스

최근, 길림공항그룹의 통일적인 조직하에 연길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은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라이프비즈니스방승밋관광국과 함께 제 4회 '925 대흥공항축제'에 참가했다.

<아리랑>의 운물 속에서 상모춤과 장고춤이 교묘하게 어우러진 무대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수도공항그룹 북경대흥국제공항 개항 5주년에 대한 연길공항의 축복을 전하고 세계 각지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초점을 보였다.

참가 일동의 야심찬 준비로 민족특색이 가득한 부스, 민족복장을 입은 사업일군들의 열정적인 소개에 관객들은 너도나도 발길을 멈췄다. "연길에는 어떠한 놀거리와 미식들이 있는가요?" "대흥공항에서 직접 연길로 가는 항공편이 있는지요?" "티켓 가격은 얼마인가요?" 현장에서 사업일군들은 차근차근

여러 의문에 해답을 주면서 광범한 관객과 참가단위들에 연길공항 소개와 문화관광자원 홍보수첩을 발급하고 연길공항 운항 로선과 연변의 민속관광, 생태관광, 변경관광, 빙설관광 등 특색 관광제품을 소개하면서 연변에 대해 료해하고 방문하도록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었다.

연길공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연길공항에서는 이번 마케팅 행사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어 지방 관광 부문과 함께 겨울항공시즌에 항공회사, OTA 플랫폼 및 여러 큰 미디어 자원으로 정확한 마케팅 홍보를 함과 아울러 항공편 운영의 품질제고에 진력하고 항공과 관광의 심층 융합을 조력하며 항공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그룹회사와 연변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리진기자 / 사진 연길공항